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강진글사랑	3
부수호란행(不須胡亂行)	3

## 부수호란행(不須胡亂行)

작성일 2021.01.10 09:01      등록자 최한우      조회수 185

대설주의 예보가 내려지고 많은 눈이 내려 온 세상을 흰색으로 깨끗하게 덮어 놓았다.  
농작물에는 겨울 가뭄에 해갈이 되어 보약이 되었고, 주거지역에는 미끄러울 세라  
눈치우기에 분주하다. 순백의 눈 위를 걸으면서 김구 선생님이 즐겨하셨다는 서산대사님의  
선시를 떠올려 본다.

踏雪野中去(답설야중거) 눈 덮인 들길 걸어갈 제  
不須胡亂行(부수호란행) 함부로 흐트러지게 걸지 마라  
今日我行跡(금일야행적)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 
遂作後人程(수작후인정)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.

[목록](#)[실명인증글쓰기](#)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